

# 조선조 왕실 여인의 가련한 삶이 아득히 보이는 곳

영조의 친필 '정업원구기(淨業院舊基)'가 있는 청룡사(靑龍寺)

지하철 6호선을 타고 창신역에서 내려 3번 출구로 나온 뒤 조금만 걸어 올라가면 청룡사가 나온다. 이곳에 옛 정업원 터임을 가리키는 비석인 '정업원구기(淨業院舊基)'가 있다. 영조가 47년(1771) 8월 28일 정업원의 옛터에 누각과 비석을 세우도록 명하고 친히 내린 글씨이다. 9월 6일에는 왕세손과 장덕궁에 나아가 진전(眞殿)에 비석 세운 일을 직접 아뢰고 이곳에 들렀다. 사찰과 마주한 봉우리에도 올랐는데 정순왕후가 이곳에서 영월이 있는 동쪽을 바라봤다는 이야기를 듣고 '동망봉(東望峰)'이란 글을 써서 바위에 새겼다. 청룡사 한쪽에 세워진 비각 속에 비석은 존재하나, 바위에 새긴 글씨는 일제 때 채석하느라 없어졌다. 봉우리 역시 지역 주민을 위한 쉼터로 바뀌었다.

영조가 친히 이곳을 방문한 것은 정순왕후의 사릉(思陵)이 무너진 것을 고친 다음이다. 영조는 정순왕후 일에 관심이 많았다. 47년(1771) 8월 9일의 일부가 무너지자 즉시 보수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바로 행해지지 않고 지체되자 책임자 예조 판서 이창수를 파직할 정도였다.

영조는 이곳에 오면서 누가 정순왕후 일에 대해 잘 아는지 물었다. 참판을 지낸 정윤유가 추천되었다. 정윤유는 단종의 누이 경혜 공주의 아들 정미수의 후손이었다. 그의 말에 의하면 단종을 영월로 유배 보낸 세조는 정순왕후에 대해서는 선처를 베풀어 한양 안에 살도록 하였다. 그러나 왕후는 동대문 밖 동쪽을 바라볼 수 있는 곳에 살기를 원했다. 세조는 재물을 주어 집을 짓도록 하였다. 홀로 남은 왕후는 단종의 누이 경혜 공주의 아들 정미수를 양자로 삼아 단종 없는 66년을 지냈다. 그렇게 긴 세월을 집과 마주한 봉우리에 올라 영월 쪽을 바라다보면서 보냈다.

왕후는 자신을 돌봐준 고마움에 죽기 3년 전인 중종 13년(1518) 7월 노비와 재산을 정미수의 아내에게 주었다. 1521년 왕후가 죽자 정미수의 선산에 장



지금은 공원이 된 봉망봉자리

사지냈고, 그 후에는 정씨들이 그의 제사를 받들었다고 속종 24년(1698) 11월 9일 기록은 전하고 있다.

이런 사실로 보아 이곳은 정순왕후가 지냈던 곳이 분명하다. 그런데 영조는 정업원 옛터라는 글을 내려 비석을 세웠을까? 조선시대 정업원은 어떤 곳일까? 이 궁금증을 풀려면 조선시대 여인들의 출가에 대해 알아야 한다.

조선시대 과부의 재가는 금지였다. 왕실도 마찬가지였다. 새로운 왕이 즉위하면 선왕의 중전을 제외하고 후궁들은 궁궐 밖으로 나갔다. 먹고 지내는 것은 어렵지 않았으나 재가하는 것은 있을 수 없었다.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왕실에서 마련해준 거처에서 조용히 지내는 일뿐이었다. 그런 후궁 가운데 출가하는 분들이 있었다. 지체 높았던 그들을 위해 세워진 것이 정업원이었다. 지체 높은 사대부 여인들도 출가하면 이곳에서 생활하였다.

조선 초기 정업원은 도성 내에 있었다. 태종 11년(1411) 6월 병조에서 승려들이 남산과 안암 등지에 초막을 짓고 재를 베풀자 모두 철거해 버리자고 주장하였다. 이때 도성 안에서 비구니 사찰이 세워지는 것이 금지되고 동시에 정업원 이외에는 모두 철거되었다. 정업원이 존속할 수 있었던 것은 여타의 비구니 사찰과 위상이 달랐기 때문이다. 실제 세종 29년(1447) 6월 왕은 정업원 주지가 자신의 친숙이며, 그곳에 있는 여승들은 모두가 사족(士族)으로서 논밭과 노비가 있다고 말하는 것을 보면 탈라도 한참 달랐을 것 같다.

그런 정업원은 어디에 있었을까? 세종 15년(1433) 7월 도성의 풍수를 이야기 할 때 정업원의 위치가 나온다. 정업원에서 동으로 동대문에 이르러 왼편을 막는 난간이 되었고, 또 한 줄기는 동남으로 내려가서 종묘와 장덕궁의 맥이 되었다는 내용으로 볼 때 동대문 안 장덕궁 위쪽임을 알 수 있다. 그 후 정업원이 궁장(宮牆) 곁에 있어 범패 소리가 궁중까지 들렸다는 기록과, 장덕궁 담 밖의 정업원이란 표현으로 볼 때 장덕궁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을 알 수 있다. 좀 더 정확한 위치는 연산 9년(1503) 11월 정업원 서쪽 골짜기 북쪽 고개를 따라 소격서(昭格署)로 가는 길에 담을 쌓아 잡인의 통행을 금하고, 정업원 동쪽 언덕에서 성수정(星宿廳) 북쪽 고개까지 모두 못발을 세우고 사람을 금하여 올라가 바라보지 못하게 하였다. 소격서는 도교와 관련된 곳으로 지금의 삼정동 쪽이고, 성수정은 무속과 관련된 곳으로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지만 대략 장덕궁과 장덕궁 위쪽으로 짐작된다.

그런 정업원이었지만 조선의 배불정책은 피해갈 수 없었다. 태종 때부터 없애지는 논의는 세종 때까지 이어졌다. 세종 29년(1447) 6월 의정부는 정업원



서울 창신동의 청룡사 대웅전 모습. 왕가의 여인들이나 사대부 여인들이 과부가 돼 출가하면 정업원에서 생활했다.

동방봉은 영월 있는 동쪽 바라봄서 유래  
단종 유배보낸 세조, 정순왕후는 도성에  
정순왕후는 영월 보이는 곳에서 기거해  
영조, 사능 보수 후 '정업원 옛터' 글 남겨

여승의 특혜가 다른 곳보다 지나쳐 폐단이 있고, 전답의 세금을 사사로이 쓰므로 없애자고 하였다. 이런 견해에 세종은 갑자기 없애면 과부들이 갈 곳이 없으므로 앞으로 정업원에 있는 사람들이 줄면 보충하지 않고 점점 없어지도록 하였다. 이때부터 정업원의 사세가 기울어지더니 세종 30년 11월 정업원 노비를 상림원(上林園)에 주면서 결국 없어지게 되었다. 다만 이곳의 불당에 금으로 만든 인왕불, 미타삼존, 육불, 불치(佛齒), 불골(佛骨) 등의 범보가 있기 때문에 대궐을 청소하는 사람들 가운데 서울에 사는 여덟 사람을 선발하여 살피도록 하였다.

이렇게 남아진 정업원을 다시 복원한 것은 세조였다. 불심이 남달라 재위기간 동안 불교를 보호하였다. 그는 3년(1457) 9월 정업원을 세우고 노비와 전지 백결을 주어서 여승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였다. 후에도 이곳을 방문하여 비단을 내릴 정도로 관

심이었다.

이렇게 복원된 정업원이었지만 성종 때 와서 불거진 불교배척의 분위기를 피해갈 수 없었다. 1년(1470) 9월 예조가 도성 내 사찰을 없애자고 하자 관청에서 장건한 사찰과 사당은 다른 곳으로 옮겨 짓도록 하였다. 6년(1475)에는 비구니들이 도성 안에 여염집과 섞여 살아 풍행을 어지럽힌다는 원상들의 의견에 비구니 사찰을 헐게 하였다. 이런 분위기가 지속되면서 11년(1480) 정업원의 노비를 각 관사에 나누어 주면서 어려움이 가중되었다. 이어 왕위에 오른 연산군은 9년(1503) 11월 정업원 주변 길에 담을 쌓아 잡인의 통행을 금하였고, 10년(1504) 7월에는 이곳의 비구니를 한치형의 집으로 옮겨 살게 하면서 결국 정업원은 없어지게 되었다. 폐사된 정업원은 중종 때 사대부의 독서당으로 이용되었다. 그 후 독서당이 동호(東湖)로 옮겨지면서 빈터로 남게 되었다.

이런 정업원이 다시 세워진 것은 명종 때 문정왕후 덕분이었다. 명종 1년(1546) 7월 왕후는 선왕의 후궁을 위하여 인수궁을 지으면서 별도로 정업원을 세우려 하였다. 이때 관리들은 후궁을 위해 인수궁을 세우는 일은 관습이나 비구니를 위해 정업원을 세우는 일은 적극적으로 반대하였다. 그렇지만 명종은 4년(1549) 11월 정업원 터에다 인수궁을 지었다. 그리고 후궁이 질병을 앓게 될 경우 옮겨 살 수 있도록

정업원을 세웠다. 그때 세워진 곳이 영조가 방문한 곳으로 짐작된다. 왜냐하면 그 후 명종 11년(1566) 4월 정업원이 성 동쪽 10리쯤 되는 지역의 땅을 사들었다는 기록이 있기 때문이다.

문정왕후가 죽은 뒤 다시 시작된 불교배척으로 불교계는 선교 양상이 폐지되고, 승과도 없어지는 등 참담한 지경에 이르렀다. 그런 분위기는 선조가 즉위하면서 계속되었다. 정업원의 폐쇄를 주장하는 대신들과 유생들에 대해 선조는 예전부터 선왕의 후궁이 있었던 곳을 들어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나 유생들의 끈질긴 상소와 관리들의 배척으로 정업원은 제 역할을 할 수 없었고, 이후 광해군, 인조, 효종, 그리고 현종 등 오랜 기간 실록에도 거론되지 않는다. 이렇게 세간의 뇌리에서 사라진 정업원이 다시 등장하게 된 것은 속종 24년(1698) 행해진 단종의 복위와, 무너진 사릉을 고치고 글을 내린 영조의 배려 때문이었다.

240년의 세월을 지내온 비각 속의 비석을 보니 세상사에 묻힌 정업원의 역사를 복원한 영조의 고마움도 크지만, 그 속에서 인고의 세월을 견디어 조선조 여인의 가련한 삶을 보는 것 같아 애절하 기만 하다.



김경집/전국대 교수

## 제9회 약천사 태(胎) 중 아기 (낙태·유산) 영가 49재 천도재

영가천도전문도량 약천사    입재: 양력 10월 16일(일요일) 오전 11시

태(胎)중 아기 지장보살님을 봉안하고 성심껏 기도하여 아기영가가 편안하고 업장소멸하기를 기원합니다.

불교에서는 낙태를 명백한 살인이라고 규정합니다. 부모의 인연으로 만나 생겨난 아기인데도 별다른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아기를 지워버리는 일이 너무나 흔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생명을 가진 태중아기는 부모가 낙태를 생각하는 순간부터 불안과 긴장으로 몸을 움츠리며 살고자 하는 모습을 보인답니다. 낙태한 태중아기 영가를 위해 부모가 진실된 마음으로 참회하고 참회한다면 스스로 지은 악연의 고리도 끊어져 새로운 인연으로 거듭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찾아드는 인연을 거부하고 '나'의 편리를 위해 '나'에게 의탁한 생명을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태중아기는 엄연한 생명이고, 그 생명을 끊은 낙태의 결과는 생각 이상으로 무섭습니다. 자신이 원했던 원하지 않았던 자신의 결정으로 세상에 나오지 못하고 죽어간 태중아기를 위해 진심을 다한 참회를 하여야 합니다.

엄마, 아빠가 태중아기를 위해 직접 기도하며 관욕의식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일 시: 2011년 10월 16일 일요일 오전 11시(음, 9월 20일)
- 장 소: 약천사 법당
- 기도입재(초재): 양력 10월 16일 (음, 9월 20일)
- 3 재: 양력 10월 30일 (음, 10월 4일)
- 5 재: 양력 11월 13일 (음, 10월 18일)
- 기도회향(막재): 양력 11월 27일 (음, 11월 3일)
- 기도 동참비: 태중아기 지장보살 봉안비 30만원, 49재 천도재 49만원  
\* 위패비, 아가옷 (무료)
- 준 비 물: 사탕, 과자, 분유(우유) 등  
\* 회향에는 태중아기 지장보살 관욕을 엄마 아빠가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베네치안삼, 양말, 신발, 장난감 등 준비)
- 입금계좌: 농협 075-02-390890 / 국민 353-24-0119-724 / 예금주: 이순수

태중아기 영가 천도 방법

- 1) 성심을 다해 참회하여야 합니다.
- 2) 49재를 올려서 천도해 주어야 합니다.
- 3) 지장경을 독송해 주어야 합니다.
- 4) 지장보살상을 사들 시는게 좋습니다.
- 5) 부처님을 조성해 드리면 더욱 좋습니다.
- 6) 태중아기 영가를 위해 등을 밝힙니다.
- 7) 대승보살계를 받게 하시면 좋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전화주시면 직접 안내하여 드립니다.

서울 노원구 중계 4동 450번지 삼정빌딩 4층 약천사 자문 협장    02)3391-8523 / 011-9002-8523